

■ 원 저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최지호, 신호철*, 최현림**, 김병성**, 원장원**

인하의대 가정의학교실, 성균관의대 가정의학교실*, 경희의대 가정의학교실**

-요 약-

연구배경: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다른 논문으로 출판하였다.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가 측정도구로서 가지는 가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방법: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도시(서울 및 인천), 중소도시(안양, 군포), 읍면지역(가평군 하면) 등 4개 지역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 800명과 이들의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Cronbach alpha를 이용해 내적 일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 척도-문항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인천의 한 여고 50명의 여고생과 그들의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3주 간격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았다.

타당도의 검증은 내적일치도를 검증한 대상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기존 가족기능 평가도구인 Family APGAR, FACES III와 비교하여 실시하였다. Family APGAR, FACES III의 척도와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척도 사이의 상관성을 보아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Family APGAR, FACES III를 통해 분류된 가족군 간의 본 연구 도구의 척도별 점수를 비교하여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결과: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alpha 값이 0.55-0.88이었고, 척도-문항 상관관계는 적절하였다. 검사-재검사의 상관계수는 척도별로 0.49-0.79이었다. Family APGAR, FACES III와 비교하였을 때 이들 도구의 척도와 본 도구의 척도는 상관관계가 낮았으나, Family APGAR, FACES III에 의해 가족기능을 분류한 군에서는 본 연구 도구의 모든 척도에서 점수의 차이를 보였다.

결론: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는 신뢰도를 보완하면 우리 나라 가족기능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학회지 2002 ; 23 : 292-300)

중심단어: 가족기능, 가족기능 평가도구, 신뢰도, 타당도

접수일: 2002. 1. 15. 승인일: 2002. 2. 28.

교신저자: 최지호 (e-mail: wisdom@inha.ac.kr)

서 론

가족이 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므로 가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

료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¹⁻³⁾ 이를 위해 가족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외국에서는 여러 도구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도구를 도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 나라에서 번역하여 사용해 온 가족기능 평가도구들⁴⁻⁶⁾은 우리 나라 가족에 적용하였을 때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있었다.⁷⁻¹⁰⁾ 또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 나라 가족의 모습을 토대로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이 간호를 중심으로 되어 있거나 정신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반적인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로서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우리 나라 가족에 적용하였을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다른 논문으로 출판하였다.¹¹⁾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는 지지 (supportiveness), 소외 (alienation), 친밀도 (closeness), 역할 (roles), 사회성 (sociality), 권위 (authority), 갈등 (conflict)의 7개 척도 4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전 논문의 후속 작업으로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신뢰도 검증

1) 내적 일치도, alpha

본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대도시(서울 및 인천), 중소도시(안양, 군포), 읍면지역(가평군 하면)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남녀를 구분하고 연령을 고려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위에 50명씩 포함되도록 하여 학생 800명과 이들의 부모 800명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과 이들 부모의 선정은 임의로 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대해 Cronbach alpha를 구하였다.

2) 척도-문항 상관관계

내적 일치도 검사를 실시한 대상에서 얻어진 설문 결과에 대해 척도별 문항이 그 척도와 상관관계가 높은지, 그 문항이 속하지 않은 다른 척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척도-문항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해 산출하였다.

표1.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척도별 내적 일치도

척도	Cronbach alpha
지지	0.88
소외	0.86
친밀도	0.72
역할	0.55
사회성	0.55
권위	0.73
갈등	0.74

3) 검사-재검사 신뢰도

본 조사 도구를 인천의 한 여고 50명의 여고생과 그들의 부모 50명에게 배부하여 설문 응답하게 하고 3주 후에 다시 설문을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타당도 검증

타당도의 검증은 내적 일치도를 검증한 대상과 동일한 대상에 대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를 기존 가족기능 평가도구인 Family APGAR, FACES III와 비교하여 실시하였다. Family APGAR, FACES III가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국내에서 준거타당도가 시행된 연구에서 준거타당도는 검증되었으므로 타당도 검증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Family APGAR, FACES III의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의 척도와 상관성을 보아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Family APGAR, FACES III를 통해 분류된 가족군 간의 본 연구 도구의 척도별 점수를 비교하여 준거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점수의 비교는 분산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

결 과

1. 신뢰도 검증

1) 내적 일치도, alpha

각 척도별 Cronbach alpha값은 지지 0.88, 소외 0.86, 친밀도 0.72, 역할 0.55, 사회성 0.55, 권위 0.73,

표2.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척도-문항 상관관계

문항/척도	지지	소외	친밀도	역할	사회성	권위	갈등
N7 우리 집에서는 우리들이 결정한 것을 부모님이 잘 받아주신다	0.61074**	0.09333	0.38846**	0.28160**	0.23735**	0.08031	-0.10197
N9 우리 가족은 항상 꿈을 갖게 한다	0.61375**	0.12750*	0.34622**	0.27935**	0.32194**	0.10772	-0.09005
N1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격려를 해 준다	0.70099**	0.20261**	0.47273**	0.32167**	0.29076**	0.07285	0.02838
N14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일을 잘 도와준다	0.63987**	0.41910**	0.16585**	0.49869**	0.11675	-0.11201	0.32668**
N18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준다	0.62888**	0.23376**	0.36483**	0.32391**	0.36877**	0.20149**	0.04086
N19 우리 가족은 각자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	0.55422**	0.06970	0.29586**	0.18134**	0.30953**	0.11191	-0.05167
N20 우리 가족은 각자의 적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0.67401**	0.17390**	0.30693**	0.31009**	0.28017**	0.07657	-0.02134
N29 우리 가족은 서로 이해를 잘 해준다	0.74354**	0.51157**	0.34408**	0.38747**	0.24889**	-0.13987*	0.25675**
N30 우리 집은 자녀가 하는 일을 믿어준다	0.69729**	0.44018**	0.17728**	0.35639**	0.19041**	-0.16750**	0.36963**
N37 우리 가족은 친구처럼 지낸다	0.64488**	0.46868**	0.20979**	0.28358**	0.24869**	-0.18999**	0.34877**
N23 우리 가족은 가족의 생일을 챙겨준다	0.46149**	0.23522**	0.24584**	0.28933**	0.13669*	-0.02514	0.05416
N25 우리 가족은 단합이 잘 된다	0.65388**	0.38105**	0.26039**	0.31105**	0.24740**	-0.14662*	0.30990**
N42 우리 집은 자녀의 진로, 진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준다	0.58090**	0.31828**	0.17875**	0.19650**	0.22622**	-0.12312	0.21085**
NN 우리 가족은 아플 때 서로 위해 준다	0.67325**	0.24842**	0.23167**	0.32135**	0.26277**	0.15196*	0.07144**
N27 우리 가족은 이기적이다	0.29186**	0.63931**	0.02666	0.23642**	0.15386*	-0.13999*	0.50989**
N28 우리 가족은 서로 비밀이 많다	0.16350*	0.58889**	-0.03245	0.13569*	0.06208	-0.29415**	0.44836**
N34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0.40890**	0.69712**	0.05981	0.22343**	0.12522	-0.15990*	0.41484**
N38 우리 가족은 의견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된다	0.41414**	0.69538**	0.12736*	0.25707**	0.12181	-0.07074	0.47468**
N39 우리 가족은 대화가 단절될 때가 있다	0.24565**	0.66515**	0.26181**	0.17781**	0.14292*	-0.04479	0.32414**
N46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	0.18457**	0.60485**	0.26672**	0.13711	0.15982*	0.13894	0.18592**
N47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어도 서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0.39644**	0.66335**	0.20581**	0.22494**	0.19489**	0.03613*	0.27427**
N48 우리 가족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0.37004**	0.73041**	0.05115	0.20340**	0.07186	-0.11413	0.51967**

최지호 외: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척도	지지	소외	친밀도	역할	사회성	권위	갈등
N53 우리 가족은 함께 있으려 하지 않는다	0.28018**	0.64460**	0.27151**	0.21682**	0.23130**	0.04461	0.30789**
N54 우리 가족은 일이 잘못될 때 서로를 비난한다	0.26552**	0.56595**	0.30119**	0.24202**	0.22846**	0.06141	0.31866**
N45 우리 집 분위기는 썰렁하다	0.41931**	0.62983**	0.39552**	0.18945**	0.23789**	0.07510	0.17288**
N49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지 않는 편이다	0.07978	0.45530**	0.08904	0.16785**	0.03211	-0.04067	0.28657**
N1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0.24460**	0.22182**	0.74697**	0.07127	0.15558*	-0.01290	0.03038
N2 우리 가족은 서로를 칭찬해 준다	0.42135**	0.09759	0.76707**	0.21995**	0.25740**	0.03674	-0.05804
N6 우리 가족은 대화를 많이 한다	0.44184**	0.23312**	0.81849**	0.22332**	0.25741**	0.08770	-0.01905
N31 우리 가족은 함께 여가를 즐기는 생활(여행, 등산 등)을 한다	0.23122**	0.19978**	0.62106**	0.15453*	0.13402*	0.09399	-0.03398
N3 우리 가족은 집안 일을 돕는다	0.29290**	0.14047*	0.16231**	0.66484**	-0.04803	-0.08815	0.11135
N8 우리 가족은 자기 일은 스스로 하도록 한다	0.33471**	0.09970	0.25002**	0.63717**	0.11203	0.15586*	-0.05635
N21 우리 가족은 각자 맡은 일을 잘 한다	0.44233**	0.13192	0.22369**	0.68597**	0.17512**	-0.07297	-0.02115
N57 우리 가족은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0.20869**	0.44601**	-0.02903	0.62120**	0.13478*	-0.20039**	0.36102**
N11 우리 가족은 친척과 잘 지낸다	0.31687**	0.16910**	0.22748**	0.12927*	0.82259**	0.01788	0.06577
N22 우리 가족은 이웃과 잘 지낸다	0.33681**	0.20508**	0.22316**	0.11151	0.84075**	0.06401	0.09865
N43 우리 집은 부모님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진다	-0.11783	-0.08511	0.02861	-0.08932	0.07903	0.88980**	-0.16133*
N52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모든 결정을 한다	0.06354	-0.05502	0.09370	-0.05970	0.01108	0.88345**	-0.16588**
N5 우리 가족은 서로 싸운다	0.19886**	0.51488**	-0.06922	0.14100*	0.06749	-0.20758**	0.89031**
N16 우리 가족은 말다툼을 많이 한다	0.20282**	0.49472**	0.02181	0.14064*	0.10936	-0.11643	0.89344**

Pearson 상관계수, * p<0.05, ** p<0.01

NN 새로 추가된 문항

갈등 0.74였다(표1).

2) 척도-문항 상관관계

각 척도별 척도-문항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

수가 지지 0.46-0.74, 소외 0.46-0.73, 친밀도 0.62-0.82, 역할 0.62-0.69, 사회성 0.88-0.89, 권위 0.88-0.89, 갈등 0.89이었다. 개발된 도구의 문항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계수는 원래 문항이 속해 있는 척도와의

표3.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와 Family APGAR의 척도간 상관관계

한국형\Family APGAR	적응도	협력성	발전성	애정성	해결성	전체
지지	-0.0480	0.0697	0.0509	-0.0852	0.1117	-0.0004
소외	-0.3169**	-0.0543	0.0025	-0.3118**	0.0286	-0.2448**
친밀도	0.0286	0.0994	0.1743**	0.0794	0.2170**	0.1534**
역할	-0.4669**	-0.1309*	-0.0663	-0.4505**	-0.0477	-0.3924**
사회성	-0.0743	0.0308	0.0278	-0.1125*	-0.0111	-0.0631
권위	-0.0166	0.1020	0.1184*	0.0668	0.1204*	0.1009
갈등	-0.1363*	0.0125	0.1076	-0.1375*	0.0533	-0.0648
전체	-0.2553**	0.0463	0.0773	-0.2528**	0.1439**	-0.1359**

Pearson 상관계수, * p<0.05, ** p<0.01

표4. Family APGAR에 의한 가족군별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척도별 점수

한국형\Family APGAR	최상기능	중등도 기능장애	심한 기능장애
지지* (14-70)	44.0 ± 11.1	38.8 ± 8.2	30.3 ± 10.4
소외* (12-60)	49.6 ± 8.8	48.1 ± 7.2	41.4 ± 12.3
친밀도* (4-20)	14.0 ± 3.9	10.8 ± 2.6	8.3 ± 2.2
역할* (4-20)	14.2 ± 3.8	13.6 ± 2.9	12.8 ± 3.3
사회성* (2-10)	7.5 ± 2.2	7.3 ± 2.1	6.8 ± 2.1
권위* (2-10)	6.3 ± 2.2	5.5 ± 2.2	4.5 ± 2.4
갈등* (2-10)	8.3 ± 1.7	8.2 ± 1.7	6.9 ± 2.3
전체* (40-200)	130.9 ± 22.9	120.1 ± 15.7	100.5 ± 26.5

평균±표준편차, * p<0.01, 분산분석

상관계수 보다 낮았다(표2).

3) 검사-재검사 신뢰도

척도별 검사-재검사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Pearson 상관계수가 지지 0.79, 소외 0.77, 친밀도 0.49, 역할 0.54, 사회성 0.71, 권위 0.53, 갈등 0.70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상관성은 0.80으로 나타났다.

2. 타당도 검증

1) Family APGAR와의 비교

Family APGAR의 각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척도간 상관관계는 소외와 적응, 소외와 애정, 역할과 적응, 역할과 애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0.3 미만으

로 상관관계가 없었고 앞에 언급한 관계도 0.31-0.47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여 두 도구의 척도는 서로 관계가 없음을 보여 준다(표3). 그러나 Family APGAR에 의해 가족기능을 분류한 군 사이에는 본 연구 도구의 모든 척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표 4).

2) FACES III와의 비교

FACES III의 각 척도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의 척도간 상관관계는 FACES III의 적응력과 본 도구의 지지와 친밀성이 상관관계(0.44, 0.37)가 있고, FACES III의 결속력이 본 도구의 지지, 소외, 친밀도, 역할, 사회성과 상관관계(0.58, 0.40, 0.49, 0.31, 0.39)를 보이고 있다(표 5). FACES III에 의해 분류한 가

최지호 외: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표5.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와 FACES III의 척도간 상관관계

한국형\FACES III	적응력	결속력
지지	0.4392**	0.5799**
소외	0.0829	0.4037**
친밀도	0.3699**	0.4917**
역할	0.1672**	0.3108**
사회	0.1669**	0.3859**
권위	0.1299*	0.0508
갈등	0.1165*	0.2891**
전체	0.3668**	0.6128**

Person 상관계수, *p<0.05, **p<0.01

표6. FACES III에 의한 가족군별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척도별 점수

한국형\FACES III	조화형	중간형	극단형
지지* (14-70)	41.4± 8.5	38.6± 9.2	35.1±12.0
소외* (12-60)	48.4± 8.7	44.6± 8.7	43.7± 9.5
친밀도* (4-20)	12.4± 3.2	11.4± 4.0	10.3± 3.4
역할* (4-20)	12.4± 3.6	12.4± 3.7	12.0± 3.5
사회성* (2-10)	7.7± 1.7	7.2± 2.0	6.5± 2.3
권위* (2-10)	5.3± 1.9	5.8± 2.1	5.6± 2.4
갈등* (2-10)	7.9± 1.6	7.9± 1.8	7.5± 2.0
전체* (40-200)	123.2±20.0	116.2±20.0	109.5±24.3

평균 ± 표준편차, * p<0.01, 분산분석

가족 사이에는 본 연구 도구의 모든 척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6).

고 찰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는 외국에서 많이 개발되었으나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한 후 이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도구가 개발된 나라와 이를 적용해 보려는 나라 사이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하나인 FES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의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과 정상 가족을 비교한 연구에서 FES-CV(Chinese versions)의 결합력, 갈등, 지적-문화적 지향성, 능동적-문화적 지향성의 심리측정 특성은 만족할 만하여 중국에서 사용이 적절하나, FES-CV의 나머지 여섯 척도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²⁾ Cheung 등¹³⁾이

홍콩에서 적용해 본 FES 중국어판은 결합력만 내적 일치도가 높았고 그밖의 척도는 낮았다. FES의 이스라엘판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¹⁴⁾ 일본판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며 일본에서 FES의 척도간 관계는 미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이다.¹⁵⁾

그러나 다른 가족기능 평가도구인 FACES-II를 중국어로 번역한 FACES-II-CV(Chinese versions)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만족할 만하며¹²⁾, FACES III의 불어 번역판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¹⁶⁾ 우리나라에서는 FES의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 모두에 문제가 있고, FACES III의 경우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 이들 도구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고려된 가족기능

평가도구를 개발한 것이다.

타당도는 측정 타당도와 결정을 위한 타당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¹⁷⁾ 본 연구에서는 측정 타당도 가운데 구성개념 타당도와 결정을 위한 타당도인 준거 타당도 가운데 동시 타당도를 보았다. 구성개념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의 척도와 Family APGAR, FACES III의 척도를 비교하였으나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척도를 비교한다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동시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비교 도구가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우리 나라 가족의 기능을 측정하는 황금 기준(gold standard)이 없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번역되어 가장 많이 쓰여 온 Family APGAR, FACES III와 비교를 하였다.

Family APGAR와 본 도구의 척도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Family APGAR에 의해 가족기능을 분류한 군 사이에는 본 연구 도구의 모든 척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어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 개념으로는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또 FACES III와는 적응력보다는 결속력의 척도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최지호¹⁰⁾가 요인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족에서 결속력이 강조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일치한다. FACES III 역시 FACES III에 따른 가족군 간에 본 연구 도구의 각 척도의 점수가 의미 있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들 결과는 Family APGAR, FACES III가 측정하는 가족기능의 영역(척도)이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맞지 않으나 단일한 개념의 가족기능으로는 유용함을 말해준다고 본다. 이는 Family APGAR, FACES III를 이용한 여러 연구¹⁸⁻²⁴⁾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우리 나라 가족의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 대상이 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인지역에만 분포하고 있어 전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대상 학교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연구 대상이 중고등학교 학생과 그들의 부모였는데 이들로 부터 얻어진 가족기능 평가도구가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되어도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척도의 Cronbach alpha

값이 0.55-0.88이고 모두 4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제 외래 진료시 임상에서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Cronbach alpha값은 집단간 비교를 하는 연구도구로 쓰일 때는 0.7에서 0.8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고 하지만 임상적으로 각 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0.9 이상은 되어 하고 0.95 정도가 바람직하다²⁵⁾고 할 때 좀 더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40개의 항목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5분 이상이 걸리므로 이보다 짧은 시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을 줄이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을 생각할 때 향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높이기 위한 연구와 외래에서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를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 좀 더 적절한 가족기능 평가도구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Campbell TL. Family stress. In: Raker RE editor. Textbook of family practice - Chapter 3. The family's influence on health. 5th ed. Philadelphia: Saunders 1995:35-8.
2. Smilkstein G. Psychosocial influences on health. In: Raker RE editor. Textbook of family practice. 5th ed. Philadelphia: Saunders 1995:46-54.
3. Baird MA, Grant WD. Families and health. In: Taylor RB editor. Family medicine principles and practice. 5th ed. New York: Springer-Verlag 1998:26-30.
4. 윤방부, 박기우. 가족기능 측정방법으로서의 Family APGAR 지수에 관한 소고. 가정의 1985;6(12):13-6.
5. 안양희.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서컴플렉스 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6. 신윤오, 조수철. 한국형 가정환경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1995;34(1):280-90.
7.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삶의 질 측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고려의학 1999. (p 363-8.)
8. 배종면, 김영주. 가족구성원 1인의 FACES III 응답 이용시 설문서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가정의학회지 1994;15(6):312-21.

9. 이기섭, 이영희, 문호성. 가족구성원 2인을 대상으로 FACES III에 대한 설문조사시 신뢰도와 타당도. 가정의학회지 1996;17(7):540-53.
10. 최지호. 중학교 학생의 가족기능 평가도구로서 FACES III 설문서의 타당도 및 신뢰도 - 본인만 응답할 때. 가정의학회지 2000;21(1):84-90.
11. 최지호, 신호철, 최현림, 김병성, 원장원. 한국형 가족기능 평가도구의 개발. 가정의학회지 2000;21(8):994-1005.
12. Phillips MR;West CL;Shen Q;Zheng Y. Comparison of schizophrenic patients' families and normal families in China, using Chinese versions of FACES-II and the Family Environment Scales. Fam Process 1998;37(1):95-106.
13. Cheung PC, Lau S. Self-esteem:Its relationship to the family and school social environments among Chinese adolescents. Youth & Society 1985;16:438-56.
14. Ravis A, Palgi Y. The perception of soci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Kibutz families with family-based and communal sleeping arrangements. Journal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5;49:376-85.
15. Saito S, Nomura N, Noguchi Y, Tezuka I. Translatability of family concepts into the Japanese culture:using the Family Environment Scale. Fam Process 1996;35(2):239-57.
16. Tubiana-Rufi N, Moret L, Bean K, Mesbah M, Fear S, Deschamps JP, Czernichow P, Chwalow AJ. [Validation in the French language of an evaluation scale for family functioning (FACES III):a tool for research and for clinical practice]. Rev Epidemiol Sante Publique 1991;39(6):531-41.
17. 한림의대 가정의학교실. 삶의 질 측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고려의학 1999.
18. 박훈기, 박희순, 김용은, 서홍관, 김창엽, 황인홍 등. 질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백혈병 환자의 부모에 대한 GHQ 및 Family APGAR결과를 중심으로. 가정의 1990;11(4):1-11.
19. 이재운, 이혜리, 조동영.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 척도(FACES III)를 이용한 만성 알콜중독 환자의 가족기능 평가에 대한 연구. 가정의 1990;11(10):29-33.
20. 김대현, 임영섭, 광기우, 이혜리, 윤방부. 가정의학과 외래 내원 환자의 우울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가정의 1990;11(7):23-8.
21. 김홍기, 장선향, 이선미, 정의식. 우울증 환자에서 가족기능도지수와 가족적응력, 결속력 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가정의학회지 1991;12(7):36-45.
22. 이규래, 임중환, 오미경, 이혜리, 윤방부. 정신질환 가족과 정상가족의 가족기능 비교연구. 가정의학회지 1991;12(1):30-5.
23. 하장현, 송애경, 정수남, 김옥용, 김병성. 위내시경 유소견자와 가족의 결속력, 적응력과의 관계. 가정의학회지 1993;13(10):821-8.
24. 유형, 김용우, 조병욱, 김순옥, 윤재경. FACES III를 이용한 상부위장관 증상과 가족기능의 비교 연구. 가정의학회지 1995;16(6):424-36.
25. Bland JM, Altman DG:Statistics notes - Cronbach's alpha. BMJ 1997;314:572.

— Abstract —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family function assessment tool

Ji Ho Choi, M.D., Ho Cheol Shin*, M.D., Hyun Lim Choi**, M.D.,
Byung Sung Kim**, M.D., Jang Won Won**,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In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Sungkyunkw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ackground: We developed Korean Family Function Assessment Tool (KFFAT). In order to confide in the results of the KFFAT, it was necessary to verify the psychometric properties (validity and reliability).

Method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the KFFAT, internal consistency and scale-item correlation was carried out with 8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800 parents. A three-week interval test-retest was also carried out with 50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50 parents.

In addition, the KFFAT was compared to the family APGAR and the FACES III to evaluate the validity with 800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800 parents.

Results: Cronbach alpha of each scale was 0.55–0.88 and overall scale-item correlation coefficient was believed to be appropriat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of test-retest was 0.49–0.79 in each scale. There is little correlation between the Family APGAR and the FACES III with the KFFAT. However, the KFFAT shows similar results in the function of family with the Family APGAR and the FACES III.

Conclusion: From this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results, the Korean Family Function Assessment Tool (KFFAT) could be used as a assessment tool of Korean family function. (J Korean Acad Fam Med 2002;23 : 292–300)

Keywords: family function, family function assessment tool, reliability, validity